

전문대학생의 IT자격증 취득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

조 현 숙¹⁾*, 양 승 복²⁾**

(The College Student for Career Self Efficacy and
Career Choice According to IT Qualification)

(Cho Hyen Suk^{*}, Seong-Bok Ya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을 분석하였다.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은 전공계열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진로선택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IT자격증 유무는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에 있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경우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계열별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진로선택시 대부분이 전공계열로 진학 및 취업 할 계획이기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선택, IT자격증, 전공만족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llege student for career self efficacy and career choice. The college student for career self efficacy and career choic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major series and major satisfaction. The career choice depends on the gender. The career self efficacy and career choice, there is no difference by IT qualif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llege students is a major satisfaction for each major series in order to increase the career self efficacy. Many college students plan to attend the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in major series. A variety of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ajors are required.

Keywords : Career Self Efficacy, Career Choice, IT Qualification, Major Satisfaction

* 외래교수

**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의료전산과 교수

I. 서론

사람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개인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족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이상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된다. 대학생의 경우 진로선택시 적성과 흥미, 취업기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 가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다. 또한, 진로선택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적성에 대한 확신 부족, 전공 수행능력, 경제적 여건,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가족의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졸업 후 갖게 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에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IT자격증 취득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전문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특정의 구체적인 장면에서의 의도하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라고 했다.[4]

이은경은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미래계획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점수가 낮고, 직업정보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2]

진로자기효능감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Taylor와 Betz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Betz, Klein, Taylor가 개발한 CDM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켰다.[3] 이

후, 백지연이 여대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타당성을 한번 더 입증시킨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5점 척도로 자기보고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2]

III.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생의 IT자격증 취득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IT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4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3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IT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4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전문대학교 재학생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53부를 제외한 288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자료 분석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al Data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87	30.2
	여	201	69.8
연령	19세 이하	3	1.0
	20세	120	41.7
	21세	95	33.0
	22세	29	10.1
	23세 이상	41	14.2
학년	1학년	148	51.4
	2학년	117	40.6
	3학년	23	8.0
직장 경험	있다.	45	15.6
	없다.	243	84.4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60	20.8
	자연과학계열	178	61.8
	예체능계열	50	17.4
전공	유아교육과	41	14.2
	유통경영과	19	6.6
	임상병리과	45	15.6
	물리치료과	36	12.5
	보건의료전산과	65	22.6
	방사선과	32	11.1
	뷰티코디네이션과	30	10.4
	의료환경디자인과	20	6.9
자격증 유무	있다	125	43.4
	없다	163	56.6
취득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1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	1.0
	워드프로세서	55	27.4
	웹디자인기능사	1	0.5
	인터넷 정보관리사	1	0.5
	컴퓨터 활용능력	31	15.4
	전산회계사	11	5.5
	다중응답 합계	201	100.0
	희망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6	3.2
워드프로세서		86	17.0
웹디자인기능사		45	8.9
인터넷 정보관리사		13	2.6
컴퓨터 활용능력		127	25.0
전산회계사		61	12.0
전자상거래관리사		14	2.8
네트워크관리사		13	2.6
다중응답 합계	507	100.0	
총 계	288	100.0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87명으로 30.2%, 여성이 201명으로 69.8%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표준분류계열정보에 의해 구분하였으며,

인문사회계열에는 유아교육과, 유통경영과가 포함되어 20.8%, 자연과학계열에는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보건의료전산과, 방사선과가 포함되어 61.8%, 예체능계열에는 뷰티코디네이션과, 의료환경디자인과가 포함되어 17.4%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유자는 163명, 자격증이 없는 응답자는 163으로 나타났으며,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자격증은 응답자 288명의 다중응답으로 507개의 자격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뢰성 검증

설문내용의 변수에 대해 신뢰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문항 전체 수준의 경우 Cronbach's alpha의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5]

표 2 신뢰성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항목	문항	Cronbach's alpha	
		선행연구	본 연구
정보수집	1, 10, 15, 19, 23	0.72	0.708
목표설정	2, 6, 11, 16, 20	0.60	0.744
진로계획	3, 7, 12, 21, 24	0.78	0.774
문제해결	4, 8, 13, 17, 25	0.63	0.695
자기평가	5, 9, 14, 18, 22	0.77	0.795
진로자기효능감		0.85	0.993

진로자기효능감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지연의 연구에서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자기효능감 검사 5개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정보수집 0.72, 목표설정 0.60, 진로계획 0.78, 문제해결 0.63, 자기평가 0.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수집 0.708, 목표설정 0.744, 진로계획 0.774, 문제해결 0.695, 자기평가 0.795로 나타났다. 진로자기효능감 25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백지연의 연구에서는 0.85, 본 연구에서는 0.9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가설의 검증

가.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

가설1인 진로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

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결과 I
Table 3 Analysis result table I

독립변수		평균	N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3.501	60	.539	3.759	0.024
	자연과학계열	3.286	178	.520		
	예체능계열	3.382	50	.573		
성별	남	3.402	87	.532	1.278	0.259
	여	3.324	201	.541		
자격증 유무	자격증 없음	3.297	163	.497	3.323	0.069
	자격증 있음	3.413	125	.583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3.818	24	.665	10.823	0.000
	대체로 만족	3.414	139	.479		
	그저 그렇다	3.192	106	.452		
	조금 불만족	3.031	17	.655		
	매우 불만족	4.000	2	1.414		

가설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59, p=0.02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고, 그다음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 순임을 알 수 있다.

가설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278, p=0.259). 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설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IT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323, p=0.069). 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자격증 있는 응답자가 자격증 없는 응답자보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설1.4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23, p=0.000). 평균을 비교해보면,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에서 조금 불만족까지 진로자기효능감이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

다.

·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의 차이

가설2인 진로선택이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결과 II
Table 4 Analysis result table II

독립변수		전공 계열	비전공 계열	전체
전공 계열	인문사회계열	56(93.3%)	4(6.7%)	60(100%)
	자연과학계열	168(94.4%)	10(5.6%)	178(100%)
	예체능계열	41(82.0%)	9(18.0%)	50(100%)
	전체	265(92.0%)	23(8.0%)	288(100%)
	$\chi^2=8.324, p=0.016$			
성별	남	75(86.2%)	12(13.8%)	87(100%)
	여	190(94.5%)	11(5.5%)	201(100%)
	전체	265(92%)	23(8.0%)	288(100%)
	$\chi^2=5.720, p=0.030$			
자격증 유무	자격증 없음	149(91.4%)	14(8.6%)	163(100%)
	자격증 있음	116(92.8%)	9(7.2%)	125(100%)
	전체	265(92.0%)	23(8.0%)	288(100%)
	$\chi^2=0.186, p=0.827$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22(91.7%)	2(8.3%)	24(100%)
	대체로 만족	134(96.4%)	5(3.6%)	139(100%)
	그저 그렇다	94(88.7%)	12(11.3%)	106(100%)
	조금 불만족	13(76.5%)	4(23.5%)	17(100%)
	매우 불만족	0(0.0%)	2(100%)	2(100%)
	전체	263(91.3%)	25(8.7%)	288(100%)
	$\chi^2=31.236, p=0.000$			

가설2.1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χ^2)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324, p=0.016$).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93%이상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 할 예정이지만, 예체능계열은 82%만이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가설2.2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χ^2)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720, p=0.03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86.2%, 여성의 경우 94.5%가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가설2.3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자격증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χ^2)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0.186, p=0.827$).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91% 이상이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가설2.4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χ^2)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1.236, p=0.00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91%이상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 할 예정이고,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전공계열로 취업이나 진학할 예정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I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로서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은 전공계열별, 성별, IT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IT 자격증 유무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전공계열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진로선택은 전공계열별, 성별, IT 자격증 취득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IT 자격증 유무에 따라 진로선택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성별, 전공계열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선택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선

택은 전공계열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진로선택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IT 자격증 유무는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에 있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경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계열별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진로선택시 대부분이 전공계열로 진학 및 취업 할 계획이기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위치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전국 소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연구 설계에 추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백지연, “여대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1집, 127-136, 2000.

[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77.

[5] 양승복, “회계정보시스템 품질과 전산회계 교육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컨버넌스학회논문지, 제6권, 제2호, 77-82, 2013.